

# 15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1, 7, 36~38장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어떻게  
말할지 알지 못하나  
이다.

**요** 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어머니 배 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알았고 너를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어떻게 말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짓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으니 내가 심판하여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예레미야는 백성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백성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는 조상들의 땅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는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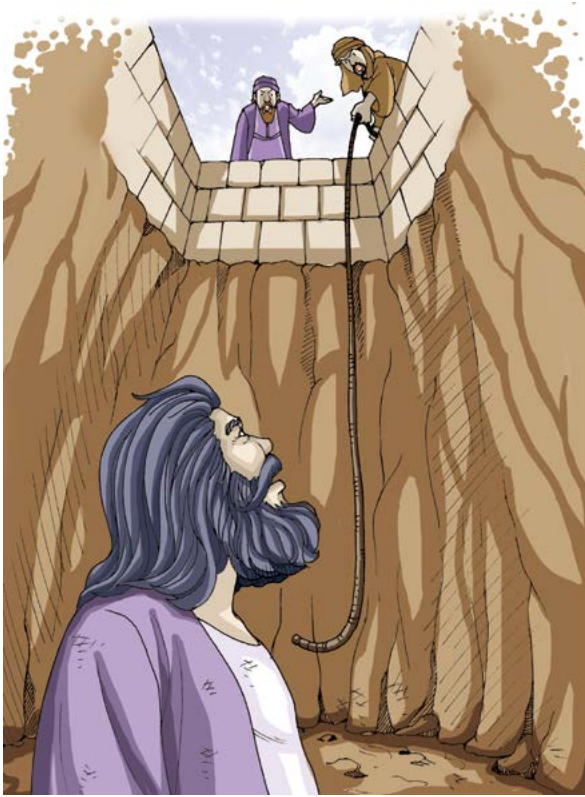
방백들은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리고 <sup>1)</sup>서기관 요나단의 <sup>2)</sup>토굴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 날 후 시드기야 왕은 그를 감옥에서 <sup>3)</sup>시위대 뜰에 있게 했습니다.

<sup>1)</sup>서기관: 율법을 보존하고 옮겨 쓰는 성경학자

<sup>2)</sup>토굴: 땅속으로 뚫린 큰 굴

<sup>3)</sup>시위대: 왕을 모셔 보호하는 군대



얼마 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굵주림과 <sup>1)</sup>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아남으리라.”

이 말을 들은 유다의 방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진흙뿐인 구덩이에서 죽게 된 예레미야는 왕궁의 <sup>2)</sup>환관 에벳멜렉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온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너와 네 가족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할 것이라.”

<sup>1)</sup>염병: 전염병 혹은 장티푸스

<sup>2)</sup>환관: 내시 혹은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

성  
경  
암  
송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1:7)



예레미야를 부르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예레미야 1:7)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간절히 바란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레미야의 고난



예레미야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성경 말씀과 아래 그림을 보고 써 보세요. (예레미야 37:15, 38:6)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 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 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파해요

아~ 슬프다.  
우리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멸망하겠구나...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  
.....  
.....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



예레미야는 멸망할 백성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불지어다 (예레미야애가 1:12)



# 알아볼까요



## 썬다싱의 고난

‘인도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이 25세 되던 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일름이라는 지역에 들어가 시장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복음을 전하는 도중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 갖은 고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밤에는 날이 새도록 찬송을 불렀고, 낮에는 작은 창문을 통해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재판장이 그를 끌어내어 판자 위에다 발과 손목을 묶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시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 돌을 던지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려들이 수십 마리의 거머리를 썬다싱의 몸에 쏟아부어 거머리는 썬다싱의 피를 빨아 살을 파기 시작했고, 그의 몸은 보는 이로 하여금 진저리칠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썬다싱은 찬송과 복음을 전하여 군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쓰레기더미에 던져버렸지만, 그곳에서도 썬다싱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들에 의해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